운경 대종사 "감명 주는 의례 만들자"

태고종 종정 신년하례 법회서
운경 스님 '종승연구원' 제안해
"정체성 정립, 의제 의례 연구"
상진 스님 "교구와 유기적 협력"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태고종은 1월 27일 서울 백련사에서 '종정예하 배알 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종정 운경 대종사가 법어를 설하고 있는 모습.

"불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들은 의례·의식을 통해 대중에게 감명을 주고 교도들을 이끕니다. 하지만 오늘날 불교는 법회·기도·재를 함에 있어 대중에게 깊은 감명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합니다."

태고종 종정 운경 상보 대종사가 병오년 새해를 맞아 시대에 맞는 의례·의제 변화와 종단 정체성 정립을 주문했다. 이 같은 변화를 위한 '종승연구원' 설립도 제안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1월 27일 서울 백련사에서 '종정예하 배알 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하례법회에서 운경 스님은 법어를 통해 종단이 나아갈 방향을 제언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스님은 지난해 1만여 태고종도가 광화문광장에 모여 종단의 저력을 보여 준 '영산재·국제수계법회'에 대해 상찬하며 "태고종의 권위와 위상이 한결 높아졌다"고 총무원장 및 지방종무원장, 종단 주요 소임자 등을 격려했다.

그러면서 운경 스님은 현재 태고종과 지역 불교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대문구 홍은동에서만 태고종 사찰 4곳이 없어졌다"고 짚은 운경 스님은 "종단들이 연합했던 서대문사암연합회도 참여하는 사찰이 없다. 이는 비단 태고종만이 아닌 불교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운경 스님은 시대에 맞는 의례 변화를 강조하며 종단 내 '종승연구원' 설립을 제안했다. 스님은 "종단에서 발간하는 월간 〈불교〉에 언급된 내용이다. 한 신도가 '사찰에서 49재를 지냈는데 가슴에 와 닿지 않았다'고 썼더라"고 예시하며 "해당 사찰 스님들은 정성스럽게 의범에 맞게 재를 올렸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신도의 마음에는 어느 하나 남지 않았다"고 되짚었다.

"무속을 찾는 사람들이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남미에서 행해지는 주술에 현지인들이 의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한 운경 스님은 "가슴에 남는 것이 있어서다. 이제 우리도 가슴에 닿을 수 있는 의례를 만들어서 감명을 주는 종교 활동을 해야 한다. 감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데 가라고 해도 안 간다"고 강조했다.

운경 스님은 "종단 기구로 '종승연구원'을 개원해 종단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현실에 맞는 의례, 의제 등을 변화·개발해야 한다"면서 "조계종은 조계종연구소, 천태종은 종학연구소를 두고 외부 학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 우리도 종단 차원의 비전을 논의할 그룹을 만들어서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문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유기적 협력을 통한 종단 발전과 변화를 약속했다. 스님은 "종단은 종정예하를 중심으로 중앙종무기관과 지방 교구가 더욱 굳게 합심해 내적으로 종도들의 권익을 증장하고 종단 운영의 안정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면서 "외적으로는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종단으로 위상을 바로 세워 한국불교의 뿌리인 전통 종단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종단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각오와 실천의 원년으로 삼아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인 시도를 통해 종단 체질을 한층 건강하게 변화시키겠다"면서 "중앙과 교구, 각 종무기관이 서로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유기적으로 협력해 종단 정책과 방향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년하례법회에는 주호영 국회 정각회 명예회장, 이헌승 국회 정각회장, 김형동 국회정각회 부회장을 비롯해 김소희·김영호·곽상언·김동아·정을호 등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헌승 정각회장은 축사를 통해 "모든 중생이 본래 불성을 지닌 평등한 존재임을 강조하신 태고 보우 국사의 가르침은 오늘날 사회와 정치에도 깊은 성찰을 준다"면서 "저 역시 국회 정각회장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정치가 국민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또 사회를 화합으로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태고종은 지난해 광화문광장에서 봉행된 영산재·국제수계법회에 공로가 큰 개인과 사찰, 단체에 공로패를 수여했다.

"서울시의회, 청년대회 지원 특위 해체하라"

조계중 중앙종회 종교편향특위
1월 29일 회의서 성명서 채택
이른 시일 내 항의 방문 계획도



서울시의회가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회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활동 등을 예고한 가운데,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보화 스님, 이하 종교편향특위)가 "공공정책 중립성을 크게 훼손한다"며 특위 즉각 해체를 촉구했다.

종교편향특위는 1월 2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서울시의회 천주교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위원장 보화 스님과 위원 탄보·석산·무경·상원·수경 스님이 참석했다.

종교편향특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특위는 국민의힘 김현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시의원 10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향후 대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제정 건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화 스님은 "특별법에는 정부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행정·재정·시설 지원이 필요할 시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 요청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이는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종교편향특위는 성명서를 채택하는 한편 이른 시일 내에 서울시의회를 항의 방문하고, 사부대중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이번 사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종교편향특위는 성명서를 통해 "특별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며, 공무원 종교중립 의무 위반을 비롯해 국민 모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안"이라며 △서울시의회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위 즉각 해체 △국회의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철회 △국가, 지자체의 특정 종교행사 지원 행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김내영 기자

법주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2월 26일

후보 등록 2월 5일까지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 중앙종회의원 직선직 보궐선거가 2월 26일로 확정됐다.

제5교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덕 스님)는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2026년 1월 27일자)을 통해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직선직 1명에 대한 보궐선거를 2월 26일 오후 1시 법주사 대방에서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법주사 중앙종회의원 원경 스님이 직영사찰 강화 보문사 주지로 임명된 데 따른 것으로, 당선자는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잔여 임기를 이어받는다.

입후보자는 승랍 15년 이상, 연령 35세 이상 종단 재적승으로 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스님이어야 한다. 후보 등록은 2월 5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선거권자는 △교구 재적승으로 중덕 이상의 비구 △교구 본·말사 주지 △교구본사에서 임명 받아 2년 이상 상근한 국장 이상 종무원으로 당해 교구본사에서 결계 및 포살에 4회 이상 참여한 스님 △교구 선원에서 8안거를 성만한 스님 △관할 본사에서 결계 및 포살을 8회 이상 참여한 스님 △교구에 4년 이상 주민등록에 등재돼 있고, 선거일 전 4년 이내로 각 목의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 등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계종 중앙선관위원회는 2월 12일 회의를 열어 후보자 자격심사를 진행하고, 2월 23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김내영 기자

진우 스님, 이해찬 전 총리 조문…"극락왕생 발원"

빈소 찾아 헌화·법성게 봉독
"민주주의 발전 헌신" 추모


사진=공동취재단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월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실에 마련된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조문에는 진우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 총무부장 성웅 스님, 기획실장 묘장 스님, 포교부장 정무 스님, 교육부장 유정 스님, 재무부장 여학 스님, 사회부장 진성 스님, 미래본부 본부장 일감 스님, 불교중앙박물관장 서봉 스님이 함께했다.

빈소에 들어선 진우 스님은 헌화 후 삼배를 올리고, 법성게를 봉독했다. 유가족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으며 위로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조문을 마친 진우 스님은 기자들과 만나 "이해찬 전 총리님께서 갑작스럽게 입적하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애통한 마음"이라며 "극락왕생을 간절히 발원한다"고 애도했다.

스님은 이어 "전 총리님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온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셨고, 그 뜻을 현실 정치에서 실현하기 위해 책임을 다한 분"이라며 "앞으로 후세들이 유지를 잘 받들어 우리나라가 온전한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열매 맺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이해찬 전 총리와의 인연에 대해서도 "총리 재임 시절 여러 차례 만나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국가 번영에 대한 담론적인 대화를 나눠 왔다"고 회고했다.

김내영 기자



송강범음범패전승회

수업형식 수료 1년 과정 (2년 코스)
개 강 2026년 양력 3월 6일 금요일
교육시간 매주 금요일 마다 오전 9시
교육내용 아침예불/ 종성/ 사물다루는 법 (목탁, 요령, 북, 태징)
천도재 (49재의식), 천수바라, 사다라니, 도량게, 다게
수강자격 불교의식에 관심 있는 스님, 포교사 및 재가불자
교육장소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고목길 51-142 봉운사
문 의 사무총장 진효스님 휴대폰 010-5306-0856
은행 농협 351-1034-0234-33 송강범음범패전승회

매주 금요일 교육 시간표
오전 9시 49재의식 진효스님
오전 10시 49재의식 진효스님
오전 11시 작법 진효스님 / 보조 정심법사님
오후 1시 화청연습 정덕스님
오후 2시 행사연습 진효스님
송강범음범패전승회 회장 웅천 합장(合掌)
▣수업 시간표는 다가오는 행사 일정 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요행사문의 – 윤달 생전예수재, 수륙재, 방생, 1000기도 회향법회, 점안식 홈페이지 www.송강범음범패전승회.kr
회 장 웅천스님 010-2370-2953
부회장 혜덕스님 010-9873-3320 / 강주 진효스님 010-5306-0856
SGBE 魚山

출강 및 통신 2026학년도 제35기 불교 법사(Dharma-bhanaka)

법사 교육 신입 수강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은 법사 양성의 독보적인 전문 교육 도량으로서 35년의 학풍을 구축하고 있으며 또한 법사 활동 외연 확장을 위해 숲명상전문가 2급 자격 취득(산림청 민간자격증)의 기회도 겸비할 수 있습니다.

① 법사자격 법위를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배움 도량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
③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
④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

불교 법사 양성 전문교육 (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 동영상미디어 강좌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원서 교부 및 접수
2026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 전화 문의하시면 모집요강과 입학원서를 보내드립니다.

깨달음의 법(法)·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한선빌딩 3층
홈페이지 : http://pubsa.net(검색창에 한국불교법사대학)
문의 02)733-1959, 02)720-1836